

대학생의 이성교제에 관한 사이버 상담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Cyber Counseling for University Students' Date

경남대학교 가정교육과

전임강사 김진희**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Full Time Lecturer : Kim, Jin-Hee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cyber counseling cases on the university students' date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they encounter in dating and seek for a direction for education and consulting program to help them solve the problems. A total of 253 cases in cyber counseling about date were analyzed. The findings demonstrated that the university students were shor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 needed for expressing Intimacy and maintaining the relationship, and poorly coping with the negative emotions such as conflict, anxiety, and boredom. Thus, a variety of human relations training programs needs to be established in the universities to help the students stay in good terms with the counterpart. Plus, cyber counseling and e-mail counseling needs to be activated so as to allow the university students to easily access when they come to face a problem in dating.

▲주요어(Key Words) : 이성교제(date), 사이버 상담(cyber counseling)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이성교제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여 이성에 대한 정서적·성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남녀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사귀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의 연령은 주로 10대 후반에서부터 20중반에 해당되며 이 연령대의 발달 특징의 하나는 성적발달로 인한 성욕의 고조와 자아의식의 발달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다. Havighurst (1968)는 사랑을 시작하여 결혼에 도달하게 되는 연령대가 이 시기이며, 주요 발달과제는 자아정체감 형성, 친밀감 형성의 능력과 이성관의 확립이라고 하였다(김중술, 1994). 이처럼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결혼은 중요한 발달과업이므로 이성교제는 단순히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한 만남의 차원을 넘어 청년들의 자아정체성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남녀에게 이성 파트너는 높은 수준의 중요성을 갖고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타인'들 중의 하나이며 의미 있는 타인은 긍정적 자아개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대학생들을 하면서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경험은 앞으로의 성공적인 삶과 결혼생활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이모영, 2002). 이는 이성교제를 통하여 남녀관계에 대한 규범, 역할, 가치관 등을 학습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이성과의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하여 개인의 성격 발달에 중요한 자아개념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규칙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성의 친구를 갖는 것은 이성관계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일 뿐 아니라 교우 집단내에서의 지위를 높여주며 자아존중감을 길러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송명자, 1995).

* 이 논문은 경남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김진희 (E-mail : witch65@kyungnam.ac.kr)

그러나 대학생들은 사회적·문화적·제도적 이유 등으로 이성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은 이성교제에 대한 성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데이트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적 정의나 모델이 없는 상태여서 대학생의 데이트 문화는 혼란과 유아기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권경인, 1996). 대학생 시기는 이성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가장 왕성할 때이지만 이성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나 적절한 태도를 확립하기 전에 경험하게 되는 이성교제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학업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성교제 중의 남녀는 사소한 습관의 차이로부터 서로에 대한 신뢰, 의사소통의 문제, 가치관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갈등을 경험한다. 이성교제 중 경험하는 갈등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부정적인 갈등표출행동의 결과로 불쾌한 정서, 친밀감 상실, 대화의 단절, 원하지 않는 이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mith & White, 2003).

대학생들은 이성교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대부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전문가를 찾아가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학생생활연구소와 같은 전문적인 상담기관을 두어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과 심리적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상담이 학생들의 적응과 심리적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기존의 대학생 상담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요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상담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이버 상담의 특징이며 가장 중요한 장점은 상담 장면의 접근을 쉽게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상담은 특히 성과 이성교제의 문제와 같은 대면상담에서 털어놓기가 부담스러운 문제의 상담에 매우 유용하다. 사이버 상담은 익명성으로 인해 상담을 하는 사람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제거되고 문제에 대한 노출이 쉬워진다(임은미·김지은, 1999).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이버 상담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영역 중에 성과 이성문제의 상담이 40%로 가장 많았고, 이 비율은 면대면의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율 2%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채인숙, 2000).

본 연구는 이성교제 중 경험하는 갈등에 적절히 대처하면 이성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이성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의사소통 기술 및 사회화 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이성교제가 대학생의 중요한 발달과업 영역이므로 이성교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의 이성교제에 대

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지만 이전의 이성교제에 대한 연구(강태순, 1994; 김종성, 1999; 박성정, 1996; 박소영, 1998; 홍원호, 1995)는 주로 태도와 실태 중심의 양적 연구 방법으로 수행되어 이성교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여 이성교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생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생을 위한 인간관계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인 대학생의 이성교제에 관한 사이버 상담 사례를 연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문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사이버 상담의 특성은 내담자가 직접 문제를 기술하는 형태이므로 상담글을 게시판에 올린 대학생들의 관점과 언어로 표현된다. 따라서 폐쇄형 질문으로 얻을 수 없는 구체적인 문제의 기술과 세밀한 감정의 묘사를 통해 대학생들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문제 유형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생에게 이성교제가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파트너와의 갈등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대학생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이버 상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상담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성교제에 관한 상담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학생 상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상담 내용은 성과 이성교제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대면 상담에서 털어놓기 부담스러운 면도 있으므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사이버 상담이 유용하며 가상세계에 친숙한 대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상담 자료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성교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안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지닌 문제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준비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랑학습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 이성교제 중인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정보와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세와 방법들을 알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관계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을 구성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II. 관련 연구 고찰

1. 대학생의 이성교제

이성교제는 특히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에게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미혼남녀의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성교제 자체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성교제는 단순히 오락적인 기능을 담당하거나 결혼 전에 경험해야 할 정도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성교제의 기능(유영주 외, 1996) 중 오락적 기능이나 배우자 선택의 기능에 비해 사회화의 기능이나 이성에 대한 적응의 기능, 인격도야의 기능 등은 덜 중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성교제를 통하여 남녀관계에 대한 규범, 역할, 가치관 등을 학습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이성과 상호작용 하는 방법을 배우며, 파트너와의 관계를 통하여 개인의 성격 발달에 중요한 자아개념을 획득한다는 점 역시 이성교제의 중요한 측면이다.

청소년 전기와 중기의 이성교제는 청소년 후기의 이성교제의 의미와 다르게 구분되기도 한다. 중·고등학교 시기의 이성친구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며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 의미를 갖지만 청소년 후기의 이성관계는 성적 정체성을 정립하며 배우자를 찾는 탐색과정으로서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박은령, 2000). 이렇게 본다면 청소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연령에서의 이성교제는 낭만적 사랑과 동반적 사랑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성인기를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성인기로 접어드는 전단계인 청년 후기의 특징을 나열한다면 성적인 안정을 보이며 자기에 대한 비판력이 증가되고,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이성과 동성 친구에게서 구하려 하며 이상적인 연인을 찾게 된다. 애정의 대상은 한 사람이 되며 영속적인 이성관계를 획득하게 된다(한만열, 2003).

인간관계에서도 특히 이성교제는 대학생의 발달 과업, 인간관계, 그리고 대학생들의 고민과 주요 갈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시기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의 발달과업이 있지만 사랑과 성, 결혼 등은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서 이성관계에 대한 바른 성숙과 효율적인 관계가 요구된다. 아울러 이성관계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대인관계 중에서 이성과 나누는 사랑만큼 즐거움과 고통, 두려움, 기쁨, 슬픔을 한꺼번에 그리고 강렬하게 맛보게 되는 경험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이성관계는 이성에 대한 이해, 원만한 인간관계, 성숙한 인격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며, 결혼 상대자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탐색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Loly & Cate, 1985).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이성관계는 개인의 생존과 발달뿐만 아니라 결혼과 가정생활의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성관계를 통해 사랑의 본질과 기쁨을 체득할 수 있으며, 이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자신의 성에 대한 바른 자세와 역할을 정립하게 된다.

대학생 상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성과 이성교제의 문제이다. 이성관계에서 주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은 가치관(45.9%) 의사소통(18.5%), 기타(7.7%), 스킨십(5.1%), 가정환경(3.7%), 직업관계(2.3%), 종교(2.0%)로 조사되었다(김경순, 2000). 이성교제를 시작한 미혼남녀는 의사소통의 문제, 성행동의 문제,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남녀간의 차이이다. 이성교제를 할 때 경험하게 되는 남녀 차이는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이나 기대,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까지 다양한데, 이러한 남녀차이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원인, 양육방식의 영향, 교사 및 대중매체의 영향 등 다각도의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재림 외, 2002).

2. 사이버 상담

사이버 상담은 사이버(cyber)와 상담(counseling)의 합성어이다. 이렇게 볼 때 사이버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 된다(임은미·김계현, 2000). 사이버 상담이란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되어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의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PC통신상담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사이버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 감정, 행동 측면의 성장을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수행되는 상담을 의미한다(박성익, 1998). 사이버는 게임이나 오락 등에만 적용되던 초기의 개념을 넘어 이제 건축, 의료, 설계, 교육, 군사, 과학, 예술, 종교 등 가상 현실의 기법을 응용,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내담자의 문제와 상담욕구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사이버상담이라는 새로운 상담 방법의 등장은 당연한 것이다.

사이버 상담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의사소통 매체로서, 20-30대의 남성과 청소년들이 상담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청각, 언어 및 지체 장애자들에게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임선희, 1996). 시간에 쫓기고 인간관계를 낫설어하는 현대인에게는 사이버 상담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과 직장인의 경우 기성세대와 비해서 컴퓨터에 익숙하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담실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나 근무시간 때문에 적절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에 컴퓨터를 의사소통의 매개로 활용한다면 온라인 대화와 전자우편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쉽게 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Bikson & Mankin, 1981).

사이버 상담은 크게 e-mail 상담, 대화방에서의 개인상담 및 집단 상담, 게시판 이용한 공개 상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 e-mail 상담은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을 써서 메일로 보내면 상담자가 메일로 답장을 보내는 형식의 사이버 상담을 의미한다. 자신이 원할 때 메일을 보내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메일로 답장을 받는 e-mail 상담은 사이버 상담의 형식 중에 꽤 보편화된 방식이다(장현아, 2000). 사이버 상담의 다른 형식인 게시판 상담은 다수의(또는 한 명의) 상담자와 다수의 내담자간의 공통된 문제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상호작용 하는 상담의 형식이다. 게시판 상담에서는 특정의 상담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다수의 내담자들이 동시에 활

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에 게시하고, 게시된 정보에 대하여 상담자나 내담자가 동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이재창, 2001). 또 채팅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화방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 컴퓨터 자판을 통해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게 된다(장현아, 2000).

사이버 상담은 1987년 한국경제신문사가 "KETEL"을 개설하며 컴퓨터 네트워크를 형성한 이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국내 사이버 상담실의 대표적인 운영 사례는 1991년 사설 BBS로 시작된 '등대', 1993년에 개설된 '사랑의 전화'를 필두로 1998년에 개설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YouCoNet' 등 총 100개 이상의 상담기관이나 단체가 컴퓨터 통신 혹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임은미·김지은, 1999).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대학 학생생활연구소, 시·도 청소년 상담실, 사설 상담기관 등에서 e-mail 상담을 비롯한 사이버 상담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3~4년 동안 사이버 상담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며(문성원 1998; 이영은, 2001; 이자영, 2000; 임은미, 1999; 장현아, 2000; 최승원, 2000; 하현진, 199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상담에 관한 연구도(성승연, 2001; 이모영, 2002; 이재창, 2001) 수행되었다. 또한 사이버 상담에 관한 기초 연구나 효과연구가 미흡한 실정에서 사이버 상담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영애, 2004)도 나오고 있어 정보화 사회에서 사이버 상담이 활성화되는 경향에 따라 사이버 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I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사례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에서 기록물 수집은 구조화 정도를 기준으로 일차적 기록과 보관 기록으로 구별할 수 있다(Baily, 1978). 일차적 기록물은 기록의 주체가 스스로 직접 기록한 것으로 본래 있는 그대로의 기록물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록의 주체가 그들의 실상을 능동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그 기록물에 어떠한 조작 또는 재규정 등도 가하지 않은 채 자연 그대로의 기록물들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상담 사례를 분석하였으므로 내담자가 직접 문제를 기술한 자료로서 일차적 기록물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연구자가 200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F 사이트의 커뮤니티 '고민있어요'라는 게시판에 올라온 상담 사례이다. 이 커뮤니티는 전국의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1,984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2001년 114 사례, 2002년 410 사례, 2003년 109 사례, 2004년 321 사례, 2005년 23 사례의 상담이 이루어져 총 977개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2004년 한 해 동안 올라온 321개의 사례를 인쇄한 후, 연구자와 3명의 대학원생이 돌아가면서 상담 사례들을 읽고 상담의 핵심 주제를 정리하여 분류하였다. 상담 내용을 주제별

로 정리한 결과 이성교제(253사례), 성(7사례), 개인적 문제(23사례), 친구관계(10사례), 기타(28사례)의 범주로 사례들을 분류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에 대해 상담한 253사례를 최종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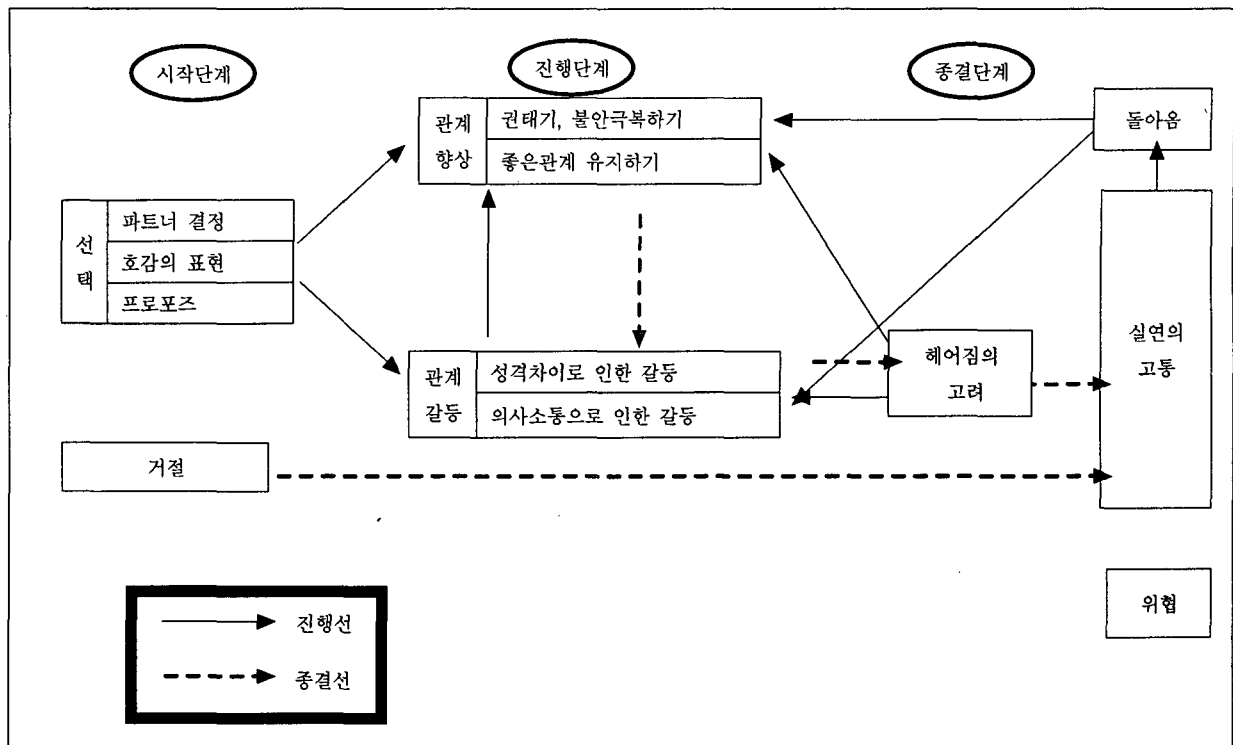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사이버 상담이 익명으로 진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연령과 결혼 여부에 따라 상담 내용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정회원 인정 조건으로 소속대학을 밝히도록 하여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대략적인 연령대를 파악할 수 있다. 데이트 지속 기간, 이전의 데이트 경험 등은 데이트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이지만 사이버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보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담에서 보고한 내용에 한정하여 분석하였고, 성별은 상담에서 내담자가 언급된 정보에 기초하여 구분하였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버 상담실에 올라온 상담 사례를 토대로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례연구의 방법은 전통적인 실험적 연구형태로서의 연역적 연구과정, 이와는 대조되는 것으로 기술 또는 해석적 연구형태로서 귀납적 연구과정, 이들 두 과정에 대한 일종의 절충적 성격을 가지며 귀납적 연구과정을 수정한 것으로 분석적 귀납 연구 과정 등이 있다(이지훈, 2000). 본 연구에서는 해석적 또는 구성적 연구패러다임에 입각해 수행되는 귀납적 연구과정에 의해 수행되었다. 사례연구를 위한 귀납적 연구과정은 어떤 명시적인 이론적 기준 또는 개념적 틀을 갖지 않은 채 일정한 연구현상, 즉 구체적인 사례의 선결과 그 관찰 자체가 연구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존 이론의 검증 또는 확인보다는 새로운 이론의 개발 또는 발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자료분석을 위한 코딩은 근거이론의 코딩 분석 틀을 사용하였다. 근거이론(Ground Theory)은 Glaser와 Strauss(1967)가 처음으로 제창한 연구방법론으로서 실제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생성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서 코딩이란 자료를 개념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용어들을 말한다. Strauss(1987; 조용한, 1999)는 근거이론에서 자료분석 단계로서의 코딩을 개방적 코딩(open coding), 중추적 코딩(axial coding),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의 세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개방적 코딩은 분석 초기에 행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제한 없이 범주들을 설정, 검토해 보는 방식이다. 연구자는 사본의 자료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고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정보의 중요한 문자나 문장에 코딩하는 목록을 만든다. 각각의 목록 내에서 연구자는 몇 가지 특성을 찾거나 또는 하위 목록을 만들거나 차별화 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



<그림 1> 대학생의 이성교제에 대한 모델

제의 범주에 속한 253개의 상담사례를 읽으면서 대학생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데이트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범주화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시작단계, 진행단계, 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개방적 코딩을 수행하였다.

개방적 코딩이 이루어지고 나면 새로운 방법으로 자료를 정리하는데, 이 방법이 중추적 코딩이다. 연구자는 흥미 있는 중심 현상으로서 하나의 범주를 인식하고, 자료에서 범주들 사이의 가능한 내적 관계를 탐구하고(길병희 외, 2001), 내적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론적 모델을 논리적인 도표를 이용하여 나타내게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의 진행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중심목록을 만들고, 각 중심 목록의 상호작용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시작단계는 선택과 거절의 문제로 분류하였고, 선택의 범주에는 파트너의 조건이나 적합한 상대인가를 검토하는 파트너 결정,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 사귀기를 합의하는 프로포즈로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다. 진행 단계는 관계향상과 관계 갈등으로 범주를 설정하고, 관계향상은 현재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심과 노력을 포함한 범주이다. 그리고 관계 갈등 범주는 현재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성격차이와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 종결 단계는 실연과정과 실연 후에 경험하는 문제들로 구성된 범주이며 실연과정은 파트너와 헤어지기를 고려하는 과정과 실연후의 고통으로 구분하였고, 실연후의 문제는 헤어진 파트너와 다시 만나는 문제와 헤어진 파트너로부터의 위협으로 범주를 설정하였다.

선택적 코딩하기 단계에서 연구자는 개방적 코딩과 중추적

코딩을 하는 동안 만들어진 결과들과 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이론의 이야기 개요(story line)를 규명하고 중추적 모델 내에서 목록을 통합하는 이야기를 기술한다. 결국 선택적 코딩을 하는 동안 연구자는 근거이론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기술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중추적 코딩 단계에 만들어진 이성교제의 3단계를 제안한 모델에 상담 사례를 반영하여 대학생의 이성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기술하였으며, 이는 다음 4장에서 정리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상담 사례의 경향

중추적 코딩 단계에서 이성교제의 각 단계마다 하위 범주를 설정하여 코딩한 결과 범주별 사례수는 <표 1>과 같다. 먼저 상담 사례에서 남녀가 차지한 비율을 보면, 총 253사례 가운데 남자의 상담 사례가 75사례(30%) 이고, 여자의 사례가 178 사례(70%)로 여성 상담자가 많았다. 상담자중 여자가 많은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남성들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거나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들이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조차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이 높다.

<표 1> 이성교제의 범주별 사례수

단계	문제범주	남자	여자	전체	
시작	선택	파트너 결정	8(19.0)	20(23.8)	28(22.2)
		호감 표현	32(76.1)	60(71.4)	92(73.0)
		프로포즈	1(2.4)	1(1.2)	2(1.6)
	거절	호감 거절	1(2.4)	3(3.6)	4(3.2)
		전체	42(33.3)	84(66.6)	126(100.0)
진행	관계 향상	권태기, 불안 극복하기	7(43.8)	10(15.6)	17(21.2)
		좋은 관계 유지하기	4(25.0)	8(12.5)	12(15.5)
	관계 갈등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	5(31.2)	45(70.3)	50(62.5)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	0(00.0)	1(1.6)	1(1.3)
	전체	16(20.0)	64(80.8)	80(100.0)	
종결	실연 과정	헤어짐의 고려	3(17.6)	4(13.3)	7(14.9)
		실연의 고통	3(17.6)	15(50.0)	18(38.3)
	실연 후 문제	헤어진 파트너의 돌아옴	10(58.8)	10(33.3)	20(42.6)
		헤어진 파트너로부터의 위협	1(5.9)	1(3.3)	2(4.3)
	전체	17(36.2)	30(63.8)	47(100.0)	

데이트에서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남녀간의 인식 차이는 전체 상담 사례수 뿐만 아니라 데이트의 각 단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남자의 경우 시작단계의 상담 사례(56%)가 진행단계(21.3%)와 종결 단계(23%)의 사례보다 많은 반면 여자의 경우 시작단계(47.1%)와 진행단계(35.9%)의 상담 사례 차이가 남성보다 많지 않았다. 시작단계의 '호감 표현'에 대한 사례는 남자(76.1%)가 여자(71.4%)보다 많았고, 파트너 결정에 관한 사례는 여자(23.8%)가 남자(19.0%)보다 많았다. 이는 시작단계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친밀감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파트너의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는 현실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다.

진행단계를 보면 남자는 '권태기와 불안 극복하기'와 '좋은 관계 유지하기'에 관한 관계향상 범주에 대한 상담 사례가 많은 반면 여성은 관계 갈등에 대한 상담 사례가 많다. 특히,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은 여자(70.0%)가, 남자(31.2%)보다 많은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의 관계지향적인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파트너의 특성이나 태도에 민감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성들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반면 여성은 관계의 부정적인 특성에 집중하여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겠다.

관계 갈등의 하위 범주에서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은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보다 매우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상담에

서 의사소통으로 인한 문제를 보고한 사례가 많은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데이트와 부부관계의 상호작용 내용이 다르고, 문제를 인지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부는 주거를 공유하며 일상적인 접촉의 시간이 많은 반면 데이트는 정해진 시간 동안 만나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데이트를 하는 동안 커플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게 되므로 부부보다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부부는 결혼생활에서 가족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므로 성격보다는 의사소통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결단계에서 실연후의 고통은 여자(50%)가 남자(17.6%)보다 많이 보고한 반면 헤어진 파트너의 돌아옴에 관한 고민은 남자(58.8%)가 여자(33.3%)보다 많다. 따라서 여성들이 실연 후에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하며 헤어진 파트너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이 진행단계에서 관계 향상을 위한 노력보다 관계갈등에 집중하여 파트너의 성격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여 관계가 종결되었을 때 후회를 하거나 관계를 되돌리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추적 코딩 단계에서 범주화된 이성교제의 단계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과 남성이 데이트를 진행하는 방법과 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인지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남성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경쟁적이고 지배적인 것에 사회화되는 반면 여성은 관계지향적인 태도를 갖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화의 차이는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 유형이 다르고, 그 문제에 대처하는 양식에도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데이트에서 경험되는 남녀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데이트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상담 사례의 분석

본 장에서는 개방적 코딩과 중추적 코딩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성교제의 시작, 진행, 종결 단계에 상담 사례를 반영하여 대학생의 이성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자 한다. 각 단계의 하위 범주에 속한 상담 내용을 분석하고 그러한 상담 내용이 대학생의 이성교제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본 연구는 사례의 수가 많으므로 각 하위 범주안에 속한 상담 사례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소개한 후 논문의 분량을 감안하여 각 범주의 항목별로 1-2개의 사례만을 제시하였다.

1) 시작단계

이성교제의 시작 단계에서는 이성교제를 시작할 것을 선택하는 것과 호감을 표현해 오는 상대를 거절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다. 선택범주에서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과 호감을 표현해 온 사람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 파트너 결정의 문제, 관심을 갖게 된 사람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문제, 교제를 결심한 대상에게 ‘사귀자’는 의도를 전달하는 프로포즈에 관한 항목이 포함된다. 그리고 거절의 사례는 호감을 표현한 사람에 대한 거절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관한 사례이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성교제의 진행 단계(그림 1 참조)로 돌입하게 되고, 호감을 거절하면 종결단계로 바로 진행된다. 만약 선택에서 파트너 결정을 연기하거나 호감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행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채 이성교제가 종료될 수 있다.

(1) 선택

선택 범주에서 파트너 결정은 이성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가 적당한 상대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파트너 결정에 관한 상담은 나이 차이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우정에서 사랑으로 발전한 상대에 대한 고민, 주변의 친한 사람과 사귀다 헤어진 사람과 데이트를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상대의 애매한 행동에 대한 고민 등이 있었고, 호감을 갖게 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의문이나 사이버에서 만나고 있는 상대에 대한 마음 결정, 파트너의 조건에 관한 사례 등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호감을 갖게된 상대나 호감을 표현해 오는 사람을 고정적인 파트너로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례들이다.

사례 1은 남자가 연상인 경우이고, 사례 2는 남자가 연하인 경우이다. 사례 1에서는 “좋기는 하지만...나중에 사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표현한 것처럼 데이트가 시작된 후 나이 차이가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남자가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상태라면 곧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사회에 진출할 것이 예상되므로 두 사람의 발달과업 차이로 인한 문제 발생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2에서는 “페이 문제도 어떻게 해야 하지...어떻게 말해야 하고 스킨십 부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데이트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이성교제를 위한 파트너를 결정할 때 나이 차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나이 차이가 적을수록 두 사람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동일한 발달 과업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증가되며, 장기적인 현신에 의해 결혼으로 갈 가능성도 증가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대상과의 이성교제에 부담을 갖는 것은 연령에 따라 환경적·상황적 요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트너 선택에서의 갈등은 대학생들이 이성교제에서 바람직하게 여기는 나이 차이에 대한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과행사 때문에 어떤 선배와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 선배는 저보다 5학년이 높구요. 어제 고백아닌 고백을 받았어요. 절 좋아한다고 그러데

저도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나이관계 조금은 부담이 되네요. 저는 21살 그 선배는 26살이거든요. 부담되는 학번이구 나이네요. 솔직히 좋기는 한데... 나중에 사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불리 시작하기 그러네요. 몇일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네요. - 사례 1(여)-

몇 달전 저를 좋아한다는 고3 아이가 있었습니다. 2살연하죠. 아무래도 연하라서 좀 걱정이마니 됩니다. 이제 얼마 안남은 수능을 치면 사귀게 될 것 같은데...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페이문제도 어떻게 해야 하지 연하랑은 사겨보지않아서 어떻게 말해야 하고 스킨십 부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고등학생이라서 조금은 마음에 걸리네요. 곧 대학생이 될 거지만..

-사례 2(여)-

사례 3에서처럼 상대의 전공으로 고민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는 전공이 직업으로 연결되어 파트너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예측하게 해주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좋기는 하지만 단지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은 아니다. 이라는 게 너무 삭막해 보이지는 않는지”라는 기술을 보면 호감을 갖고 있는 상대의 전공이 파트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 시기의 이성교제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배우자 선택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직업을 고려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운동선수라는 게 걸리거든요. 정말로 사람은 좋고 우위에 아는 사람들이 다들 좋다고들 하지만 운동선수인지라 너무 맘에 걸리네요. 제주도 전국체전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거기 출전 했습니다. 1회전에서 떨어졌다더군요. 새벽에 엄청 술 마시고 전화하는데 제가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휴.. T.T 좋기는 하지만... 단지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은 아니다.. 이라는게 너무 삭막해보이지는 않는지.. 운동선수라는 직업이 정말로 힘들잖아요. -사례 3(여)-

시작 단계의 선택 범주에 속하는 상담 중에는 동시에 두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례도 있다. 사례4를 보면 “자꾸 그 친구가 생각나고 그래요. 그렇다고 원래 좋아했던 사람이 싫은 건 절대 아니네요”라고 혼란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사례 5에서도 “오빠를 포기하면서 그 아이와 잘 되려고 애쓰고 싶지도 않구요. 그냥 그 아이를 물어가면서 살기도 힘들 것 같아요”라고 동

시에 두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을 묘사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현재 사귀고 있는 파트너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으며 기존의 관계와 새로운 관계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저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은 저 멀리 학교엘 다녀서 간간히 문자 주고받고 몰래 전화했다 끊는 걸로 만족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친구분이 우리과 거든요 전 그 친구분이랑 친해지고 싶을 뿐이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자꾸 그 친구가 생각나고 그래요. 그렇다고 원래 좋아하던 사람이 싫은 건 절대 아닌데요.. 암튼 저 이상해요.. 글고 저 그 친구분 좋아하기 싫어요 T.T 근데 자꾸 생각나요.-사례 4(여)-

2년 이라는 시간동안 난 마음속에 그 아이 안고 살았지만..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했던거봐요. 벌써 1년이나 만난 오빠가 있거든요. 그 아이와 같이 있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나 전화가 빨리 전화가 빨리 끊고 싶어서.. 그랬어요. 교수님이 그랬죠. 동시에 두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나 오빠를 포기하면서 그 아이와 잘 되려고 애쓰고 싶지도 않구요. 그냥. 그 아이를 물어가면서 살기도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죠?-사례 5(여)-

대학생 시기의 사랑은 장기적인 헌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새로운 상대에게 호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상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면 자신의 감정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규정하지 못한 경우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신뢰하지 못한다. 또한 호감을 느낀 대상이 주변의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 있는 경우에 이성교제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이별을 하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받게 되는 비난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성교제는 누군가를 선택하고 잠정적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이성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파트너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호감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저랑 그 아이랑은 별루 안 친하다는 거죠 저랑은 그 아이의 친구랑 더 친하거든요~ 솔직히요. 전 제가 호감이 가는 아이랑 연락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학교에서 마주치는 일도 별로 없구요 그것때때 요즘 고민이 되네요 혼자서 생각하다가 보면 호감이 짝 사랑으루 커져 버리잖아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낼

수도 있는 사인데. 사랑을 얻으려면 자존심도 버리랴구 어디서 들었는데요 전 절대루 그렇게 못해요 자존심은 저만이 지킬 수 있는 거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죠?- 사례 6(여) -

호감 표현에 관한 사례는 이성교제에 대한 상담 사례에서 가장 많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호감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이성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성교제는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므로 한쪽이 느낀 호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례 6의 “호감이 가는 아이랑 연락하고 싶어요. 근데 학교에서 마주치는 일도 없구요”라는 기술에서 보듯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알리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호감을 표현하는 것인지 혹은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지에 관해 혼란을 느낀다.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애가 있는데요 한. 만난지 3주일정도 됐는데.. 지금은 서로 꽤 친해져서 손도 잡고 다니구.. 그래여.. 언제쯤 대쉬하는게 좋을까요? 거절당한다는 생각은.. 아직 안해봤는.. 데.. 조언 좀 해줄래여?
- 사례 7(남)-

프로포즈는 선택한 파트너에게 호감을 표현 한 후 ‘사귀자’는 제안을 통해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 7의 “지금은 서로 꽤 친해져서 손도 잡고 다니구...언제쯤 대쉬하는 것이 좋을가여?”에서 보는 것처럼 두 사람이 데이트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한다. 이러한 확인 절차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다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독점적인 관계를 파트너로부터 확인 받고자 하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거절

시작 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되는 호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절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호감을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선후배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성교제에서 호감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지 않는 호감을 거절하는 것도 성인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같이 수업 듣는 분 중에서 저에게 호감을 거지고 커피를 사준신다거나 연락을 보내는 분이 계

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제가 연락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데 외모 때문에 거절한다는 것이 그분에게 충격을 주는 것 같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례 8(남)-

사례 8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거절한다는 것이 그분에게 충격을 주는 것 같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서 보듯이 본인이 선호하는 타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트는 상호작용 하는 관계이므로 두 사람이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이성교제로 발전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쪽이나 호감을 받고 있는 쪽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성교제 혹은 사랑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관계 향상에 요구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관심에 대한 거절 방법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거절의 뜻을 편안하게 표현하는 것도 성숙한 성인의 자질이라고 하겠다.

2) 진행단계

시작단계에서 파트너를 결정하고 이성교제가 시작되었다면 진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관계 향상과 관계 갈등에 관한 것이다. 관계 향상은 이성교제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변화를 수용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관계 갈등은 두 사람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성격차이, 의사소통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관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이성교제는 계속 진행되고, 갈등이 많아지게 되면 종결의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 또한 <그림 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종결 단계에서 다시 진행단계로 되돌아 올 수도 있다.

(1) 관계향상

이성교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의 내용이 변하는 역동적인 관계이므로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관계의 양상이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권태기를 느낀다거나 파트너가 소홀해진 것으로 불안해한다. 관계 향상 범주에서 권태기, 불안극복하기로 분류된 상담 사례를 보면 데이트의 소재 부족, 전화 횟수의 감소, 너무 편안해진 관계에 대한 의문 등이 있었다. 사례 9에서 “처음과 달리 바쁘다고 저에게 아주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에서 보는 것처럼 데이트가 지속되면서 이전과 다른 파트너의 태도를 경험하게 된다. 사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정이 감소하기 때문에 초기의 흥분된 감정은 데이트가 지속되면서 변화하게 된다. 이런 변화를 수용하고, 불안감을 극복한다면 관계는 더 향상될 수 있다.

여친과 사귀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과 달리 바쁘다고 저에게 아주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학생이고 그녀가 직장인 치여 피로에 쌓여산 건 사실이지만 제가 만나고 연락을 하는데 훨씬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무관심하고 그리고 저에게 애정이 식은 것도 분명하고 벌써 실증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4일째 서로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헤어지자고 할까요? 아님 그녀의 말대로 천천히 비워둬주며 기다릴까요? 물론 제 선택이지만 후회하지 않게 신중하게 결정하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례 9(남)-

남자친구랑 100일정도 되어 가는데. 사실..첨엔 남자친구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많이 소홀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제가 바래다주고 싶어서 바래다주고 선물도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친구들은 그러지 말래요 남자가 만만하게 생각한다고.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애가 요즘 날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가끔 속상할 때도 있거든요 - 사례 10(여)-

사례 10에서 “남자친구가 많이 소홀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애가 요즘 날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가끔 속상할 때도 있거든요”라는 기술을 볼 때 데이트가 진행되면서 상대를 편안하게 대하는 변화들이 생겨난다. 이런 상황을 느끼게 되면 두 사람은 관계를 시작 단계의 강렬한 감정으로 회복시키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초기의 감정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이성교제의 지속을 보장해 주는 아니라고 하겠다. 오히려, 이런 변화들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수용하는 것이 관계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다음주면 100일입니다. 3주 후면 그녀의 생일입니다. 제가 처음 만날 때 그녀에게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자신도 선물주는 거에 익숙해지고 그녀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의해 무뎌지죠. 이미 커플링도 했구 많이도 놀러 다녔습니다. 어디가서 모해야 할쥬. 100일날 모할지 또 2주 후면 생일인데 선물을 각각 줘야할지. 자기 경험담이나 조은 아이디어 있으며 알려주세요..사례 11(남)-

관계향상에서 좋은 관계 유지하기는 안정된 이성교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파트너를 감동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사례 11에서 “100일날 모할지? 또 2주 후면 생일인데 선물을 각각 줘야 할지” 와 같은 고민은 데이트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파

트너를 감동시키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낭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대학생 시기의 이성교제에서 볼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하겠다. 두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다양한 기념일을 만들어 내고, 그 기념일을 함께 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성교제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남녀간의 차이나, 의사소통 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이성교제에 관한 교육에 기념일 보내기, 이벤트 만들기와 같은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관계 갈등

이성교제를 하는 두 사람에게 있어 갈등은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계 갈등을 잘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계 종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장기적인 헌신이 없는 이성교제는 갈등의 발생이 관계 종결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성격차이로 분류된 사례들은 매우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 거짓말, 무관심, 배려 없는 태도, 의심, 집착, 불성실, 무뚝뚝함, 음주 등이다. 그리고 파트너의 바쁜 생활이나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과거의 애인을 완전히 정리하는 못하는 것에 대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분류한 것은 본인과 파트너의 행동적 특성이 개인의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 범주로 분류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례 12에서는 남자친구의 성격으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간섭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세계가 너무 강해서 그 어떤 사람도 방해받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에서 보듯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사적인 영역에 대한 경계를 심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례 13의 경우는 “친구들하고 밤새 놀구, 친구들과과의 약속이라든 어떻게든 지키려 합니다. 그렇다고 저와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라고 기술한 것을 볼 때 여자친구의 사교적인 태도와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성격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오빠는 간섭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어느 정도의 간섭이 아니라 간섭 아니 신경 쓰는 자체를 굉장히 싫어해요 다른 사람한테 폐끼치는것도 잔소리 듣는 것도 제가 우울해 있는 것도 자기가 무슨 일 할 때 방해받는 것도 강요하는 거 다 싫대요 그리고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자기를 만나면서 자기한테 소홀하지만 않으면 다른 남자를 사귀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남자 날 좋아한다는 느낌은 듭니다. 자기세계가 너무 강해서 그 어떤 사람도 방해받기 싫어하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힘 듭니다. 오빠는 또 독신주의자예요 어떻게까요? - 사례 12(여)

전 그녀가 제 이외의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참

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도 제가 이렇게 질투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시골 친구들 하구.. 밤새놀구.. 친구들과과의 약속이라든 어떻게든 지키려 합니다. 그렇다구 저와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제가 그녀를 너무 제 틀속에 가두려고 하는 걸까요? 어쩔 땐 그녀가 무엇을 하구 있는지 다 알고 싶어 질 때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제 자신을 보며 이게 혹시 의처증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 조언 좀 해주세요 -사례 13(남)-

사례 14는 사례 12와 13와 다르게 본인의 성격적 특성으로 갈등을 보고하는 사례이다. 사례 14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넘 조심스러워지구요. 친구들과 거의 연락을 안하게 되고, 너무나 작은 말들에 혼자 상처받고 화가 나구요”라고 데이트 이후의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데이트를 통해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기 보다 본인이 갖고 있는 예민함이 더 표출됨으로써 데이트 경험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성격 특성을 확인하게 된 사례이다.

오빠로 인해 제성격이 변해 가는 것 같아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넘 조심스러워 지구요. 친구들과과도 거의 연락을 안하게 되고. 너무나 작은 말들에 혼자 상처받고 화가나구요. 오빠는 계속 불안해하지 말라고 니가 좋아하는 만큼 나도 널 좋아한다고 그러고 있지만 신뢰두 안가고 제가 문제가 많은거 알면서도 그렇게 되요 너무 잘보이려고만 하고 나한테 손해가는 것 같은 말은 하지 않고. 아직은 크게 힘들 것 같지 않아도 언젠가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사이 같아요. 친구들은 그렇게 신경쓸려면 헤어져라 라고 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예민한건 사실인데.. 방법이 있으나 모르겠어요. -사례 14(여)-

이성교제에서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은 싸움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관계를 종결로 이끌어 간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 차이는 잘 극복하여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이성교제의 기능 가운데 자아통찰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성숙한 관계 형성을 위한 훈련이 부족한 대학생들은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파트너에게 강요하거나 파트너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심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관계를 종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관계 갈등에서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담 사례는 한 사례밖에 없었다. 사례 15는 남친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서 일상적 대화의 부족으로 원만한 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무

대응, 차가운 말투, 뿔대로 되라식의 무정한 말들”에서 볼 수 있듯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자주 만나지 못하면서 일상적인 대화가 부족해지고, 서로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이유 없는 짜증과 권태로 갈등상황에 놓이게 된다.

거의3년이 다되어 가여. 남친은 지금 방위산업체에 다니 면서 바빠여,, 요즘은 거의 일주일에 얼굴 한 번 보기도 힘들 정도고. 만나도 서로 딴짓을 한답 니다. 평상시 오빠가 무뚝뚝하긴해도 절 마니 아끼긴하는데 오빠가 방산에 간이후 저랑 만히 싸워서 그런가. 제가 화를내기 시작하면 무관심. 무대응, 차가운 말투, 뿔대로 되라식의 무정한 말들.. 헤어져도 상관없다식의...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여?-사례 15(여)-

대학생 이성교제의 특징 중 하나는 빈번한 만남이며 서로의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을 보고한 사례가 적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례 15에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싸움이 많아지고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커플의 경우 다양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이용해 떨어져 있는 시간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두고, 서로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종결 단계

종결 단계는 실연과정과 실연후의 문제로 범주화하였는데 실연과정은 헤어짐을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실연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실연후의 문제는 헤어진 파트너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것과 헤어진 파트너로부터의 위협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헤어진 파트너와 다시 만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관계는 다시 진행 단계로 돌아가게 되며(그림 1) 실연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는 경우 새로운 대상을 만나게 되어도 시작단계로 진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1) 실연과정

실연의 과정은 헤어짐을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헤어짐의 고려는 애정이 식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단계에서 관계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거나 관계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헤어짐을 고려하게 되는 것은 파트너의 이별 선언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경험하게 된다. 사례 16에서도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니 지금까지 한통의 전화도 없습니다. 이별을 예고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라고 헤어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례 17의 경우도 “그녀에게서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녀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라고 갑자기 닥친 여자친구의 이별 선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어제 오후 3시...아마도 그게 마지막 통화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화를 냈는데..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니.. 지금까지 한 통의 전화도 없습니다. 이별을 예고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둘만의 카페를 탈퇴했더군요 500여일 며칠 안 남았는데..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나는 동안 그에게 불만도 많았고 서운함도 쌓였고 그랬지만 이렇게 아무런 설명없이 절 떠나 버린 걸..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나요..너무 힘이 들어요.-사례 16(여)-

오늘 그녀에게서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인즉,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녀는 나를 사랑할 자신이 없다는 거였어요. 다섯시간 채팅으로 설득한 끝에.. 서로 좋아하는데 왜 헤어져야 한다는 말로, 헤어지지 말구 천천히 마음을 열어보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일단은 마무리되었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 맘이 마무리되었겠습니까. 아마 아직도 그 마음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텐데요.. 둘에게는 서로가 모두 처음하는 연애하는 거라서...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어떻게 하면 그녀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사례 17(남)-

헤어짐의 고려에서 특징은 일방적인 파트너의 통보라는 점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헤어짐을 고려하는 자신에 대한 상담보다 헤어지자는 파트너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헤어지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파트너에게 헤어지자는 선언을 듣게 되면 정말 헤어져야 하는가 혹은 헤어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게 되는 헤어짐의 선언은 혼란과 후회, 좌절의 감정을 느끼도록 한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실연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돌아서 버린 상대의 마음을 돌려려는 시도를 통해 실연을 피해보려는 경향이 있다.

실연의 고통은 대학생의 이성교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정서라고 볼 수 있다. 실연의 고통을 상담한 사례에는 헤어진 파트너를 잊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없거나 새로운 사랑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례들도 있었다. 그리고 실연 후에 후회와 떠나버린 파트너를 기다리는 사례도 있어 실연의 고통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

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사례18를 보면 “그에게 전화하지 않기 전 그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별 후에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라며 이별의 상처를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태는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학업과 사회적 관계에 역기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에게 전화하지 않기 전 그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없는 내 생활 찾기. 그것 말고, 전 뭘 해야 할까요 빨리 다른 연인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사랑이란 이름이 지긋지긋하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이별 후에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상처가 없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별이 지금 제겐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별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마음 상태가 어땠고, 겪는 과정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처를 이겨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례 18(여)

또한 사례19에서는 실연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실연의 상처를 정리하지 못하기도 한다. 심지어 “이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두려워여 이젠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여”라며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실연 후의 상처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담 사례를 통해 대학생이 이성교제의 종결에서 경험하는 실연의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실연의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실연의 상처는 상담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이제 어느 덧 그녀가 제 곁을 떠나간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 아직도 그녀가 생각이나곤 해여. 그동안 제가 잠깐이라도 사귀던 여친들은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딘가 모르게 그녀를 닮았어여. 이젠 잊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두려워여 이젠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여.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져. 정말 난 사랑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누가 이런 나 좀 구제해 주세요..-사례 19(남)-

따라서 대학생의 이성교제에서 실연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빈번히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시키고, 실연에 대한 대처와 극복 방안을 교육하여야 한다. 결혼 준비 교육 혹은 이성교제에 관한 교육 내용들은 관계 유지에 중점을 두고 긍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다루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이성교제는 장기적으로 지

속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실연 후의 적응에 대한 교육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실연의 고통을 다루는 법이나 실연을 통해 자신을 재평가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다음의 이성교제가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이성교제를 통해 인간적 성숙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2) 실연 후의 문제

실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관계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실연 후에 헤어진 파트너가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하거나 혹은 본인이 다시 시작해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다. 시간이 지나도 헤어진 파트너에 대한 사랑을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거나 떠나버린 파트너가 다시 연락해 오는 경우 두 사람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미련이라고 볼 수 있다. 사례 20에서는 다시 시작하자는 파트너에 대한 상담이다. “다시 사귀어보고 연락이 왔던군요. 좋은 사람이란 건 저두 느끼고 있거든요. 다시 잡아야 할까요?”라고 헤어진 파트너가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이성교제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간에 다시 시작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진행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진행단계에서 관계향상을 위해 노력하거나 다시 시작한 후에도 관계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커플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이별의 경험이 또 다시 헤어질 수 있다는 방향으로 작용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방해하기도 한다.

일년반정도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잘 지냈는데 권태기가 찾아왔던 거였는지. 도저히 안되겠다고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구 한달 반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에 사귄 때는 조금 구속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구속하는걸 조금 풀어주면서 자유롭게 다시 사귀어보고 연락이 왔던군요. 좋은 사람이라는건 저두 느끼고 있거든요. 저랑 잘 맞구. 근데 결혼에 대해서는 저랑 좀 다르더라고요.. 다시 잡아야 할까요? 아니 여기서 그만 두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는게 조울까요?-사례 20(남)-

사례 21에서는 헤어진 후에 계속 연락하는 남자친구에 대한 내용을 상담하고 있다. “가끔씩 제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짜증납니다. 전 그 사람 너무 너무 싫거든요”라는 내용을 볼 때 여자쪽에서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헤어진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사례 20과 달리 다시 관계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종결된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불쾌감을 주게 됨으로써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 다시 시작할 의사가 없는 대상에게 분명한 거절의 뜻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대학생들 대상

으로 하는 이성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될 것이다.

그 사람 아직도 절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가끔씩 제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보고싶다 미안해 안녕 이런 문자 받으면 디게 짜증납니다. 솔직히 전 그 사람 너무나 싫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화를 했죠 나 못잊는거 티내려고 어떤 쓰레기 문자 보내냐구. 다시는 어떤거 보내지 말라구요 이렇게 안 하면 또 문자 보낼꺼 같아서.. 정말로 싫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전 정말로 그 사람 싫습니다. 끝낸 마당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 정말로 짜증만 납니다. 좀 알려주세요...혹시 제가 뒤처리를 하지부지 해서 그런가요? -사례 21(여)

실연후의 또 다른 문제는 헤어진 파트너로부터의 위협이다. 이런 사례는 파트너가 실연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헤어진 관계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넘어서 집착과 협박으로 상대를 괴롭히게 된다. 사례 22에서 “처음에는 죽여달라고 하더니 지금은 저를 죽이고 싶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 여자가 넘 무섭습니다”라는 기술을 볼 때 헤어진 파트너로부터의 위협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헤어진 애인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사건들이 보도되는 것처럼 실연후의 적응에 실패한 경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위협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에서는 헤어진 파트너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전 여친이 처음에는 죽여달라고 하더니 지금은 저를 죽이고 싶다고 합니다. 그녀는 저때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는 할꺼 다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전화는 그녀한테서 오는데 무슨말을 해야할지.. 정말 할말도 없고 문자나 전화가 오면 이제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가끔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합니다. 만나면 안되는 것을 알지만 무슨 말로 거절해야 할지... 현명하게 처신하고 싶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태어나서 2번째 사귀는건데. 정말 요즘 여자가 넘 무섭습니다.-사례 22(남)-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이성교제에 관한 사이버 상담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생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생을 위한 인간관계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상담실에 2004년에 올라온 321개의

사례 중에 이성교제 대한 상담 253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시간적 변화에 따라 범주화됨을 가정하고, 시작단계, 진행단계, 종결 단계의 맥락으로 상담 사례를 분류하고 해석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위한 귀납적 연구과정에 의해 수행하고, 이성교제의 진행과정을 시작-진행-종결 단계로 모형화 하였다. 시작단계는 적당한 파트너를 결정하고, 호감을 표현하면서 장기적인 이성교제를 제안하는 프로포즈의 과정이다. 진행 단계는 상호작용의 내용에 따라 관계 향상과 관계갈등으로 구성하였는데 관계 향상은 이성교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이고, 관계 갈등은 이성교제의 종결 가능성에 기여하는 요인이다. 종결 단계는 헤어짐을 고려하고 실연의 고통을 경험하는 과정이며 이 단계에서는 헤어진 파트너가 돌아오거나 헤어진 파트너로부터의 위협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은 이전의 이성교제 단계에서 제시된 것보다 대학생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성교제가 만남으로부터 시작해 결혼 결정으로 진행되는 단계보다는 파트너의 결정으로부터 시작해 실연까지 포함하는 진행단계로 보는 것이 대학생이 경험하는 이성교제의 단계를 포괄적으로 제시해 준다. 상담 사례 분석 결과 이성교제가 일방적인 호감에서 끝나거나 헤어짐을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어, 이성교제의 단계를 만남으로부터 결혼 결정 단계로 인식하는 것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파트너의 선정으로 시작해 실연 후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시작-진행-종결 단계의 모형은 대학생의 이성교제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대학생이 경험하는 이성교제에 관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성교제 교육 프로그램은 성별, 데이트의 단계 그리고 데이트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사회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목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각 단계에서 보고한 상담 내용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성교제 혹은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어야 한다. 반대의 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이 나타내는 특성과 제한점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게 할 때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진행단계뿐만 아니라 시작단계와 종결 단계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랑 학습이나 이성교제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관계 진행 단계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다. 그러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례가 가장 많았던 범주는 시작 단계에서 호감을 표현하는 것에 관한 문제였다. 많은 대학생들은 이성교제에서 파트너와의 고점적인 데이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성에게 접근하거나 호감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사회화 과정에서 이성을 대하는 방법이나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작단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성교제의 종결 과정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성교제의 초점을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상황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연과정이나 실연후의 문제 등을 다루지 않고 있다. 상담 사례 분석 결과 종결 단계에서의 어려움이 다른 단계에서의 문제보다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강도가 높아 대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2-3년이 지나도 실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거나 떠나 버린 파트너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전의 실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데 장애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성교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양 과목이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헤어짐을 선언하는 파트너에게 대처하는 방법, 실연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소개해야 할 것이다.

이성교제 교육 프로그램이 데이트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성교제나 사랑의 경험이 언제나 긍정적인 정서로 경험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호감을 보여주는 상대에 대한 중중한 거절이나 이별 한 파트너의 이어지는 연락이나 위협 등도 데이트에 포함된 측면이다. 따라서 데이트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데이트를 통해 자아성숙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세 번째,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상담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으로 사이버 상담이 효과적임을 제안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전문 상담실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교내의 학생생활연구소나 지도 교수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대면 상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 더러 대학생의 상담내용이 여러 차례 이어지는 상담보다는 일회적인 내용이 많아 사이버 상담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성교제, 가족, 개인 신상에 관한 상담은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사이버 상담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적고, 학생과 교수 양쪽에게 시간 절약을 도모할 수 있다.

게시판을 이용한 사이버 상담은 유사한 문제를 지닌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올려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올라온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상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유사한 경험이 있는 다른 내담자가 교수를 대신하여 답글을 올리는 경우에도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신뢰감이 형성되어 상담의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대면상담보다는 온라인 상담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개방된 상담실을 운영하고, 게시판뿐

만 아니라 채팅을 통한 상담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 접수 일 : 2005년 03월 15일

□ 심사 일 : 2005년 05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5월 20일

【참 고 문 헌】

- 강태순(1994). **여고생의 이성교제,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경인(1996). **대학생의 이성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의 효과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길병희 외(2001). **교육연구의 질적 접근**. 교육과학사.
- 김경순(2000). **사랑학습 프로그램이 교제 중인 대학생의 이성 관계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종성(1999).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있어서의 의식구조와 그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중술(1994). **신(신)사랑의 의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문성원(1998). **컴퓨터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성익(1998). **사이버 세계와 청소년 상담**. 청소년대화의 광장.
- 박성정(1996).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 허용성, 성지식, 성역할 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소영(1998). **농촌 지역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성의식, 성행동과 성교육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령(2000).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승연·김영미·김희영·이진희(2001). **e-mail 상담에 대한 대학생 내담자의 기대: 질적 분석**. **학생생활상담 19**. 가톨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37-59.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 유영주·김순옥·김경신(1996). **가족 관계학**. 교문사.
- 이모영(2002). **사이버 상담을 활용한 대학생 생활지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고찰**. **학생생활연구 6**. 신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51-63.
- 이영애(2004). **상담실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 상담의 효과 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은(2001). **사이버 상담의 성과 측정도구 타당화; 단회 온라인 채팅 상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자영(2000). **사이버상담에서 상담자의 언어반응이 초기상담**

- 협력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재림·옥선화·이경희(2002). 이성교제에서의 남녀차이 이해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가정관리학회지*, 20(5), 37-49.
- 이재창(2001). 대학에서의 사이버상담 활용. *학생생활연구* 15. 홍익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20.
- 이지훈(2000). *사례연구방법*. 도서출판 대경.
- 임선희(1996). **pc통신상담의 효용성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김계현(2000). 사이버 상담의 현황과 전망. *사대논총* 61. 서울대학교 사법대학. 19-35.
- 임은미·김지은(1999). 청소년 사이버 상담의 발전모형. 한국청소년상담원.
- 장현아(2000). **사회공포증의 사이버 집단상담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용한(1999). **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교학사.
- 채인숙(2000). **인천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상담의 이용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인천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승원(2000). **사이버 공간과 대면상담에서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자 특성 비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하현진(1999). **내담자 호소유형에 대한 상담자의 상담전략에서 보이는 언어 반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만열(2003). **이성교제 상태에 따른 청소년의 이성친구에 대한 애착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원호(1995). **남고생의 이성교제와 성의식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ikson, T. K., Gutek, B.A. & Mankin, D. A(1981). Implement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office setting.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 Loly,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of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179-194.
- Smith P. H., White, J. W., & Holland, L. J.(2003).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dating violence among adolescent and college-age women. *Am J Public Health*, 93(7), 1104-9.